



불교 이레서 좋다

주미옥

카톨릭대 심리학과 2학년

차 한잔의 인연

벌써 2년 전 일이다. 내가 한 스님을 알게 된 것은 대학이란 신세계에 펼쳐진 생동감의 결정체 '불교 학생회'라는 동아리에 가입하면서이다. 동아리에서는 매번 방학 때마다 경북 영주 근처에 고풍스럽게 자리 잡은 사찰로 수련회를 가곤 했다. 신동성이 제법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기슭에서 사찰의 대웅전까지 꽤 먼 길이 트여져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감회가 새로움을 느꼈다. 귀 밑머리로 스쳐지나가는 바람은 무엇이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왔는지 커다란 물음표를 그리면서 지나가 버렸다. 다다른 입구의 사천왕은 그 동안 한껏 두터워졌던 나의 번뇌와 망상들을 잠시나마 물어주었다.

이런 기억의 조각들을 선물해 준 사찰에서 스님과 멋진 담소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다. 스님께서는 투박해서 오히려 단아한 멋을 뽐내는 다기 그릇을 꺼내 놓으셨다. 그때마다 스님은 향긋

한 향이 우러질 때까지 평온한 시선으로 차마 밑을 바라 보셨다. 나 또한 활짝 열어 놓은 문밖으로 내다보이는 하늘과 구름에서 시선을 거두기 어려웠다. 그러는 동안 흘러가는 정적 속에서 스님과 나는 침묵으로 열 마디, 스무 마디 말들을 나누었다.

수련회에서 돌아와서도 줄곧 편지를 보내 스님을 귀찮게 해 드렸다. 스님은 귀찮다는 내색도 없이 늘 좋은 책들과 좋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지금은 참마음의 세계로 향해서서 물 흘러가는 데로, 구름 흘러가는 데로 떠나셨다. 하지만 스님은 언제나 고요한 진리의 살아있는 파동으로 내 기억 어디에선가 늘 존재한다.

부족하나마 이런 경험이 더욱더 삼보에 귀의하고자 하는 발심을 하게 했다고 고백한다. 지금쯤 스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 부처님 품안에서 세운 서원을 꼭 이루시고 참 마음의 세계로 향하시리라.

2003 '세계 물의 해'

이스라엘의 잠적농법
1인당 수자원 이용 가능량이 연간 300톤(한국 1200톤)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중동 최대의 농업 국가가 된 데는 까닭이 있다. 국가 차원의 철저한 물 관리와 재

잠적농법의 원리는 간단하다. 토양 속에 파이프를 설치해 물을 뿌리 부근에만 최소량 공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농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전통관개의 물효율은 40~60%에 불과하고 스프링클러 관개는 70~80%인데 비해, 잠적농법은 90~95%의 물효율을 자랑한다.

한국의 경우 전체 수자원 중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이른다. 전체 수자원의 절반 가량이 농업에 쓰이고 그중 80%가 벼농사에 쓰이고 있다. 이제 벼농사도 보다 효율적인 물 이용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
농법개발로 물효율 90~95% 높아

봉사하며 역사공부 "짱이야"

개학을 한 지도 열흘 남짓 흘렀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긴 겨울방학을 보낸 탓인지 교실 생활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럴 때 야외로 나가 사람과 문화재 주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올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www.youthvol.net) 전국 지부들은 다양한 문화·역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이런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면 즐거움과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자원봉사 접수까지 받는다면 일석이조다.

충남 지역 청소년들은 4월부터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준비한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은 부여 '백제요'에서 백제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견학하고 보석함, 재떨이 등 토기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일이 끝나면 청소년들은 부소산성과 궁남지 등 사적지를 방문해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역사 유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041)736-9003

대전 지역 학생들은 인근 유적지를 방문해 문화재 보호 및 청소, 잡초 제거 등 활동을 하는

'문화재 보호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실시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문화재해설사와 함께 내 고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도 있다.(042)488-0732

광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조선 시대 가사 작가들의 활동 배경이 되는 담양 등 가사 문화권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는 '가사문화재 문화답사'를 실시하고 있

◇지난해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소속 학생들이 문화재해설사 봉사 활동을 하기위해 설명을 듣는 모습.



청소년 센터, 유적지 연계한 프로그램 다양 답사·환경정화 등 문화의 소중함 직접 체험

다. 비정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의사를 봉사센터에 미리 밝혀두면 유리하다. 또 광주 박물관에서 주변 청소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062)234-0755

전라남도의 문화를 배우고 싶다면 '남도문화역사기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전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부터 도내 문화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재를 답사하고 정화 활동을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4월부

터 매달 2회씩 실시된다.(061)243-1450

경상남도에서 자연 보호 운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환경체험 릴레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또 경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문화재해설사와 함께 밀양문화권을 답사하고 문화재 주변 정화 등을 하는 '문화재 애호 봉사활동'도 실시 중이다.(055)264-2311

이와 함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서울, 부

산, 경기 등 전국 17개 지부들과 동시에 3월부터 '청소년 문화역사 지도'를 제작하는 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3, 4월 경 청소년 봉사단을 구성해 4월부터 문화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들을 모아 올 연말부터 인터넷 상에 문화재와 관련한 전자지도도 구축한다.(02)578-4104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3·1운동 기념 제24회 만해백일장 개최

춧볼·휴대폰 등 주제 1천여명 겨뤘
시·시조 김수미, 신문에 조지영 대상



만해백일장 참가자들이 동국대 중강당에 모여 있다.

만해 스님의 문학정신과 민족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3·1 민족독립운동 84주년 기념 제24회 만해백일장'이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우) 주최로 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춧볼, 휴대폰, 밥 등 주제로 열린 이날 백일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등 1천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었다.

시·시조와 산문으로 나눠 진행된 백일장에서 안양에 김수미 양은 시·시조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부천에 조지영 양은 산문 부문 대상을 받았다. 또 특별상인 우수단체상에는 안양예고가 선정됐다. 참가자 중 총 121명이 상장과 상금을 받았고 수상자들은 대학 입학시 특

례입학의 기회를 얻게 된다.

심사를 맡은 신경림 시인은 "해가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의 글짓기 실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교를 부리지 않는 솔직하고 꾸밈없이 쓰여진 글들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능인복지관, 청소년 심리검사 실시

능인복지관은 만 3세~18세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사전에 검사 날짜를 조정한 후 그 날짜에 복지관으로 찾아오면 된다. 검사항목은 지능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 학습지도검사 등이고 검사비는 5천원~2만원이다.

또 능인복지관은 사회 적응 및 지적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를 매주 실시하고 있다. 놀이치료는 1회당 2만5천원, 미술치료는 2만원이다.(02)571-2988

한불청, 3·1절 기념 장학금 지급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1일 서울 마포구 달마선원에서 우수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된 정범(명지대 2년)군 등 8명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수여했다. 참나지도자회 박재의 부회장과 고창영 사무총장, 대한장애인공예협회 송호성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제84주년을 맞은 3·1절과 선 심리치료 상담전화인 '마음의 전화'의 개통 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도각 스님은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에 우뚝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작 비디오 파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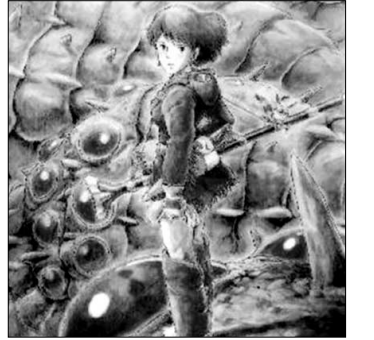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가 1984년에 제작한 116분 짜리 애니메이션. 국내에서는 2000년 12월에 개봉되었다. 영화는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인간 욕심에 의한 전쟁

환경오염, 자연파괴 다뤄

신비한 능력을 지닌 바람계곡의 공주 나우시카와 거신병이란 무기를 개발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군사대국 토르메키아의 대결을 축으로 전개된다. '불의 7일'이란 대전쟁을 통해 불바다가 된지 천 년이 지난 지구는 '부해'라는 곪

팡이 숲과 '오무'라는 곤충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하지만 대자연은 '부해'와 '오무'를 통해 스스로 치유 중이었고 나우시카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인드라마의 그들'처럼 연결된 존재란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영화는 환경오염에 의한 자연파괴와 인간 욕심에 의한 전쟁을 반대하는 등의 주제를 세련되게 그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른길 사파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보살계수계산림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보총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모시고 전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계율을 설하여 1358년간 전승해온 유일한 계율의 근본도량입니다. 금년도 통도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봉행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7년 3월 일

- 일 시
 - 입제일: 2003년 4월 6일(음 3월 5일) 일요일
 - 회향일: 2003년 4월 8일(음 3월 7일) 화요일
- 장 소: 통도사 금강계단
- 계 사: 전계사사리 현산 영철 대화상
- 동참금: 5만원
- 접수처: 본사 기와 접수처 및 각 말사

▷ 연락처 부산포교당 (051)816-2241

- 마산포교당 정법사 (055)246-8393
- 울산포교당 해남사 (052)211-3340
- 밀양 무봉사 (055)354-3296
- 서울포교당 구룡사 (02)575-7766
- 창원포교당 구룡사 (055)255-6359
- 밀양 표충사 (055)352-1150
- 창녕 포교당 (055)533-2295
- 서울 보현사 (02)355-9815

교통편

- 통도사 버스 - 부산: 온천장 지하철역 앞 08:00 ~ 9:00
- 대중교통 - 부산: 노포동 시외버스, 고속터미널
-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 대구: 고속터미널 '부산행 일반고속'
- 서울: 동서울고속터미널

대한불교 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현산 영철 대화상 주지 이산 현문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 종무소 055)382-7182 FAX 055)382-7196 / 기와접수처 : 055)381-1288